

질문을 달고 사는 KAIST의 괴짜들, 모였다!

KAISTian이 만들어 가는 궁금증 가득한 캠퍼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11월 말, KAIST에 '괴짜'들이 모였다.
11월 28일 오전 학술문화관에서 첫 닳을 올린 '2023 KAIST 큐데이(Q-Day)'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11월 말, KAIST에 ‘괴짜’들이 모였다. 11월 28일 오전 학술문화관에서 첫 닳을 올린 ‘2023 KAIST 큐데이(Q-Day)’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큐데이’는 KAIST의 신문화전략인 ‘QAIST’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구성원을 격려하는 행사다. 창의적인 생각을 권장하고 질문하는 캠퍼스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표를 뒀다. QAIST 두문자를 따라 창의교육(Q), 연구(A), 국제화(I), 기술사업화(S), 신뢰와 소통(T) 5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41개 팀 총 84명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중 7개 팀에게 특별 강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바이오및뇌공학과 장무석 교수는 창의교육 분야 포상자로 선정돼 ‘질문하는 뇌’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 장 교수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강조하며, “질문을 품고, 함께 나눠서 ‘상상의 경계’를 허물자”라는 내용을 전했다.

장 교수는 전문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 토론을 이어나가면서 ‘문제 내는 문제’ 제도를 발전시킨 경험담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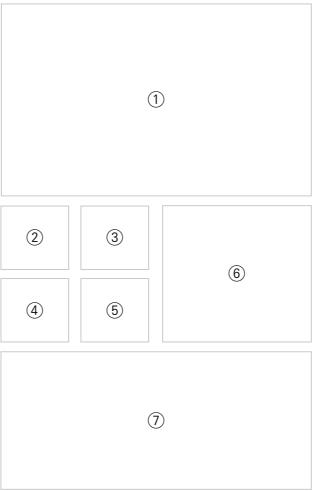
‘학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가 없는 학과 교수’인 구태운 의과학대학원 교수도 창의교육 분야 포상자로 선정됐다. 어딘가 허가 꼬이는 것만 같은 타이틀대로 구 교수는 의과학대학원에 대학원 과정만 있음에도 최초로 학부 대상 교과목을 개설했다. 이 수업의 독특한 점은 시험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치아는 왜 평생 두 번만 날까?’와 같은 인체나 질병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난 수업에서는 100명의 수강생이 100개의 창의적 질문을 만들어 이에 관해 두 달간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인사말과 소감을 이야기하는 이도현 교무처장



- 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광형 KAIST 총장. 이 총장은 늘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 ② 로켓동아리 THRUST 수상
- ③ 바이오및뇌공학과 장무석교수 수상
- ④ 의과학대학원 구태운 교수 수상
- ⑤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사과정 이준원 수상
- ⑥ 행사장을 가득 채운 수상자와 참석자. 수상작마다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가득했다.
- ⑦ KAIST의 마스코트인 넙죽이와 함께 한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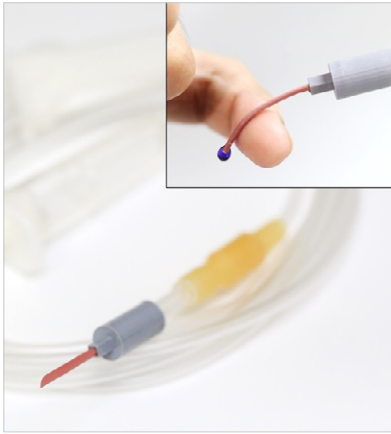
구 교수의 수업은 ‘질문하는 수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KAIST에 ‘문제 내는 문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 교수는 “시험을 치를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학생들을 보며 질문하는 학습법의 큰 가능성을 봤다”며 “세상을 바꿀 참신한 질문들을 기다리며 KAIST만의 질문하는 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후부터 질문을 만들고 그에 관한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렀다는 이준원 씨도 이날 시상대에 올랐다. 그가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틈틈이 노트에 기록한 질문은 1,300여 개에 이른다. 주제도 학업부터 경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신호를 공부하는 전자공학도로서 경제 분야의 거시 지표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해보기도 했다.

이 씨는 이런 습관을 토대로 소속 학부에서 개설한 제어시스템 공학 수업에서 교과서나 교재에 출제되지 않는 형식의 전공 수업 문제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문제는 담당 교수인 명현 교수와 100여 명의 학생이 함께 풀었다고 한다. 이 씨는 “학부 과정의 교육은 해당 분야의 거장들이 수백 년 전에 발견한 내용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도 새로운 탐구와 질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공우주공학과 로켓동아리 트러스트(THRUST)도 창의 인재 부분의 상을 받았다. 이 동아리는 고체 로켓을 직접 제작해 2023 전국 대학생 로켓 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창업 활동을 병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트러스트는 KAIST 교내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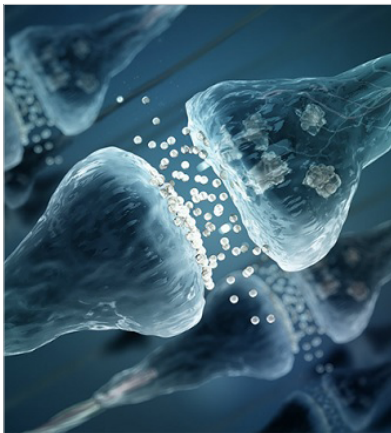
이도현 교무처장은 “2021년 시작된 신문화전략 QAIST에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짧은 추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가 배출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 성과들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오늘의 큐데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구성원이 KAIST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KAISTian](#)



+ 부드러워져 재사용 불가능한 주사바늘 개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 연구팀이 의과 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환자 건강증진 및 의료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체온에 의해 주사바늘이 유연해지는 특성을 통해 정맥에 약물 주입 중 주사 삽입 부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사바늘에 의한 혈관 벽 손상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보기



+ 뉴로모픽 반도체로 통증도 느낀다

KAIST 신소재공학과 김경민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메모리 소자인 멤리스터를 사용하여 통증자극 민감도 조절 기능을 갖는 뉴로모픽 통각수용체 소자를 최초로 구현했다.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이중 전하 저장층 구조를 통해 외부에서의 자극에 대한 임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뉴로모픽 통각수용체 소자를 최초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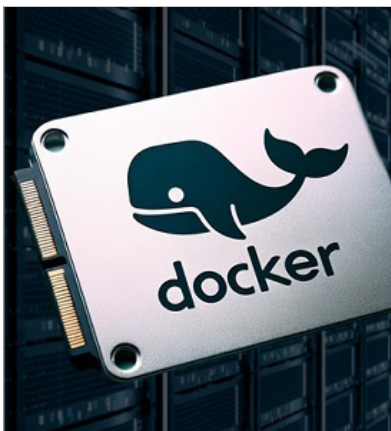
>> 더보기



+ 알츠하이머병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발굴

KAIST 화학과 임미희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유발인자의 독성을 촉진하는 세포 내 단백질을 발굴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새로운 병리적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부 이영호 박사 연구팀, 우리 대학 화학과 백무현 교수 연구팀, 의과학대학원 한진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희귀난치질환연구센터 이다용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다.

>> 더보기



+ 독립적으로 더 스마트해진 ‘도커SSD’ 개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정명수 교수 연구팀이 물리적 장치의 실행이 아닌 가상으로 데이터 처리와 운영이 되는 ‘도커’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모델 중 하나인 ‘도커SSD’를 개발했다. 도커 SSD는 스마트 SSD의 제조사나 장치 환경에 관계 없이 현존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스토리지에 인식하여 실행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 더보기



+ 형인우 동문, 경영대학 발전기금 10억 원 기부

형인우 KAIST 동문이 발전기금 10억 원을 KAIST에 기부했다. 형인우 동문은 “가르침과 배움만큼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KAIST 경영대학에서 배우며 행복했고 개인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형인우 동문은 삼성SDS, 한계임, 네이버, 한계임재팬을 거쳐 카카오 이사,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역임했다.

>> 더보기

+ 라이온로보틱스, 알데바, 도전! K-스타트업 창업리그 대상 수상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에서 KAIST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의 사족로봇 ‘라이보’를 개발한 라이온로보틱스, 신소재공학과 스티브박 교수의 교원창업 기업 알데바가 올해 대상을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0월 31일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왕중왕전 리그를 열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총 6187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30개 팀이 최종 결승에 진출했다.

>> 더보기

+ 예종철 교수 연구팀,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 신호처리분야 금상 수상

KAIST 김재철AI대학원 예종철 교수팀이 ‘확산모델의 사후 샘플링을 이용한 일반적인 역문제 해결 기법’으로 제 29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신호처리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은 과학기술 저변 확대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가 1994년 제정한 논문상이다.

>> 더보기

+ 기계공학과 이정철 교수 연구팀, 2023 KSME-SEMES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전문가그룹 금상 수상

KAIST 기계공학과 이정철 교수 연구팀이 지난 11월 1일~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23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KSME-SEMES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에서 전문가그룹 금상을 수상했다. 발표 주제는 “가열 유동채널 공진기 기반 하이퍼 멀티모달 측정과 마신 러닝을 활용한 초미량 미확인 액체 인식 기술”이다.

>> 더보기



+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우리 대학 성과 5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KAIST에서 이번 우수성과에 5개가 선정됐다.

>> 더보기

+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 연구 본격화

KAIST가 11월 23일 오전 대전 본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글로벌 백신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과 백신 관련 국제적 연구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IVI가 협력해 세계 보건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 더보기

+ 신임교원 행정서포터즈 출범

KAIST가 11월 13일 행정 본관 제1회의실에서 신임교원 행정서포터즈 출범식을 열었다. 행정처가 추진하는 ‘신임 교원 행정 서포터즈’는 신임 교원이 부임 초기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다. 신임 교원 행정 서포터즈는 기존에 행정 처리를 위해 다수 부서와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신임 교원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해 적극 행정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더보기

+ ESG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동문들, ‘ESG 리더스클럽’ 창립

KAIST ESG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이 ‘KAIST ESG 리더스클럽’을 창립하고 11월 24일 결성선포식을 열었다. 주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ESG 과정을 개설한 가운데 KAIST는 국내 최초로 경영·기술·정책 교육을 통합해 개설·운영하고 있다. ‘KAIST ESG 리더스클럽’은 과정 수강생 및 수료생 139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 더보기